

마르코 복음서 1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마태 3,1-12; 루카 3,1-9.15-18; 요한 1,19-28)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1,11;9,7 참조), 더러운 영들도 그것을 밝힌다(3,11; 5,7 참조).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시지만, 결국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 친히 이 칭호를 받아들이시고(14,61-62 참조), 마침내 백인대장이 그것을 고백한다(15,39 참조).¹⁾
- 2)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예수님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고백이다.
- 3) ‘기름부음받은이’를 뜻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곧 구세주를 가리킨다.²⁾
- 4)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사도들이 선포한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³⁾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서처럼 희생과 자기 부정(否定)이 요구된다(8,35; 10,29 참조).⁴⁾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마르코는 말라 3,1과 이사 40,3을 섞어 인용하였다. 말라키아서에 나오는 ‘주 하느님의 길’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길’이 되는데, 하느님의 사자인 요한이 그것을 준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⁵⁾

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이하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7쪽, 각주 1.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7쪽, 각주 2 참조.

3) 로마 1,1 :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7쪽, 각주 3 참조.

5)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7쪽, 각주 5 참조

말라 3,1 :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이사 40,3 :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1) “세례”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요한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리키지만, 본디 유대교에서는 더러움을 정화하기 위한 침수(沈水)나 세정(洗淨)을 뜻하였다. 그리고 요한 시대에는 여러 종교 단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심판 때, 곧 시간이 찼을 때 행해질 세례에 대한 마지막 준비로서 모든 이에게 단 한 번 베풀어졌다. 그 전제조건이 ‘회개’이고, 그 목적은 세례가 행해지는 그 순간에, 또는 하느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선물로 주어지는 ‘죄의 용서’이다.⁶⁾
- 2) ‘고백하다’는 죄를 자백함을 뜻하며, 죄의 고백은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느님께로 돌아감을 뜻한다.⁷⁾

-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1) 광야에서 생활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이 보인다.⁸⁾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인은 검소해야 한다.
- 2) “능력”은 신분이 높은 사람의 행렬에서처럼, 앞에 가는 이와 뒤에 오는 이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드러낸다. 뒤에 오는 분이 ‘더 큰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이다.⁹⁾

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8쪽, 각주 9 참조.

7)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8쪽, 각주 11 참조.

시편 32,5 :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28,13 : 자기 잘못을 감추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 버리는 이는 자비를 얻는다.

야고 4,10 :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1요한 1,9 :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8) 2열왕 1,8-9 : 그들이 대답하였다.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틀림없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오십인대장을 부하 쉰 명을 팔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1베드3,3-4 : 머리를 땅아 올리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걸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9)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8쪽, 각주 13 참조.

- 3) 남의 신발 끈을 푸는 일은 노예나 하는 일이다. 앞서가는 요한은 뒤에 오시는 분의 종일 따름이다.¹⁰⁾ 곧 세례자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 4)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에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물의 세례는 죄를 씻음을 상징하고, 성령의 세례는 실제로 죄를 용서함을 뜻한다.

세례를 받으시다(마태 3,13-17; 루카 3,21-22)

-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11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1) 세례자 요한의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요한의 역할을 존중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계시의 유일한 증인이심을 선포한다.
- 2)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개입을 상징한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심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¹¹⁾
- 3)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친 음성이 들렸다. 삼위의 하느님이 계시 된 것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마태 4,1-11; 루카 4,1-13)

- 12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 13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 1)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능력을 지닌 사탄과 맞서신다.¹²⁾

10)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8쪽, 각주 14 참조.

1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9쪽, 각주 17 참조.

12) 마태오 복음 4,1-11 해설 참조

- 2) 천사들의 시중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혹의 시련을 이겨낸 분이시라는 것이다.¹³⁾
- 3)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마태 4,12-17; 루카 4,14-15)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1) “하느님의 복음”은¹⁴⁾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로마 1,16)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말은 사도들의 직무를¹⁵⁾ 정의하는 표현이기도 하다.¹⁶⁾
- 2)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이며 나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마태 4,18-22; 루카 5,1-11)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9쪽, 각주 23 참조

14) 로마 1,1 :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15,16 :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에게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코린 11,7 :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15) 1테살 2,2 :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8-9 :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1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59쪽, 각주 25 참조

-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 1)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됨을 뜻하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은 그분과의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나타낸다.¹⁷⁾ 구체적인 내용은 마태 4,18-22해설을 참조.
2) 제자들은 “곧바로” 따라나선다.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따라나설 수 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루카 4,31-37)

- 21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22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권위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과 전통의 권위만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이다. 곧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24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5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26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27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28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 1) “더러운 영”은 마귀를 가리키는 데에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더러운 것이다.¹⁸⁾

17)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0쪽, 각주 34 참조

18)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1쪽, 각주 38 참조

- 2) 더러운 영은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두려운 것이다. 곧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거룩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마태 8,14-15; 루카 4,38-39)

- 29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3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마태오 복음 8,14-15해설 참조.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마태 8,16-17; 루카 4,40-41)

-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 마태 8,16-17해설 참조.

- 2)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귀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비밀이 누설되기를 아직 바라지 않으신다. 아직 예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⁹⁾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루카 4,42-44)

- 35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9)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2쪽, 각주 48 참조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을 것이다.”

39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 1)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신다.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다. 기도를 통해서 찾은 하느님의 뜻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을 돌아보는 더러운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것이다.
- 2) 신앙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교우들을 본받자.²⁰⁾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마태 8,1-4; 루카 5,12-16)

40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은 부정(不淨)한 병으로 공동체 어울리지 못하고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다.²¹⁾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한다. 하느님이신 분을 알아보고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은 치유로 보답하신다.

4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 1) 나병을 고치는 것은 죽은 이들을 되살리는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하느님만이

20) 사도 2,42 :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21) 레위 13,45-46 :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시오.’, ‘부정한 사람시오.’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죽은 이들의 부활과 함께, 메시아 시대의 은혜로 여겨진다.

- 2) 예수님께서서는 함구령을 내리신다. 하지만 이 함구령은 지켜지지 않는다. 하느님 아드님의 권능이 발산되는 것을 결국에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²²⁾
- 3) 받은 은혜를 퍼뜨리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선포이다.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도록 해야 한다.

2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63쪽, 각주 57 참조